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령IC 구간 광역 통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61) 320-7700

SK '거침없는 질주'

中 톈진에 15-0 콜드 승… 2연승

한국 대표 SK와이번스가 2008 아시아시리즈 예선 풀리그에서 거침 없는 2연승을 거뒀다.

SK는 14일 일본 도쿄돔에서 계속된 대회 둘째 날 2차전 중국 톈진 라이온스와 경기에서 7회 김재현의 3점 홈런 등 14안타를 퍼부은 끝에 15-0,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전날 일본시리즈 우승팀 세이부 라이온스를 물리친 데 이어 2승을 거둔 SK는 15일 대만과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다.

중국 야구는 대만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긴 했지만 아직 한국의 상대는 아니었다.

그래도 초반엔 중국의 기세가 좋았다.

톈진은 1회말 첫 공격부터 선두타자 허우펑롄의 내야 안타에 이어 왕징차오의 보내기번트로 1사 2루 득점권에 주자를 보냈다.

후속타 불발로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오랜만의 낮 경기를 하느라 잠이 덜 깬 SK 타선이 1, 2회 무안타에 그친 데 비해 눈에 띌 만한 호조였다.

하지만 SK의 낮 경기 적응은 2이닝으로 충분했다. 3회초 나주환이 우중간을 시원하게 가르는 2루타를 때리면서 공세에 나선 SK는 타자 일순해 10명이 7안타에 희생플라이, 볼넷 한 개씩을 보태 7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갈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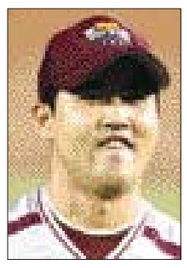
4, 5회 2점씩을 보태 11-0으로 달아나며 콜드게임승 요건을 갖췄고, 7회 김재현의 쐐기 3점포 등 4점을 보태 15점차 승리를 거뒀다.

중국은 산발 5안타를 뽑았지만 수비 실책 3개를 저지르며 자멸해 2연패를 당했다.

SK 선발 투수 송은범은 4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았고 5회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봉쇄한 이영욱이 승리투수가 됐다. SK는 15일 3차전에서 대만 퉁이 라이온스와 격돌한다. /연합뉴스

히어로즈, 선수 팔아 장사 하나

에이스 장원삼 삼성에 30억 현금 트레이드
6개 구단 강력 반발… KBO 오늘 대책 논의



14일 프로야구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단행한 장원삼〈사진〉 트레이드를 놓고 나머지 6개 구단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이다.

6개 구단 단장들은 히어로즈가 삼성에 현금 30억원과 좌투수 박성훈(26)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에 에이스 장원삼을 넘긴 것을 두고 KBO에 트레이드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6개 구단은 'KBO가 야구기금 130억원을 몽땅 털어 히어로즈를 살려 놓은 뒤 이런 식으로 주축 선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만 본다는 건 도저히 상식에도 안 맞고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다음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 이번 트레이드를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KBO를 압박했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아시아시리즈를 참관하러 일본 도쿄에 있던 하일성 KBO 사무총장과 이상일 KBO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둘러 귀국했다. 이들은 이날 밤 또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KBO 관계자는 "6개 구단 주장에도 솔직히 수긍이 간다. 트레이드를 아예 없던 일로 처리해 삼성과 히어로즈 구단을 설득할지, 예정대로 트레이드를 승인할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이번 트레이드 보다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원칙으로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히어로즈 주축 선수의 이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히어로즈가 프로야구에 가입하면서 5년간 구단 매각 금지, 선수 간 트레이드 사전 승인 등 안전조치를 내걸었던 KBO는 특히 이번에도 감시, 감독에 실패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공적자금과 비슷한 야구기금 130억원이 현대 유니콘스에 투입됐을 때 재정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방만한 구단 운영으로 이어지게끔 빌미를 제공했던 KBO는 주축 선수를 팔아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 한 히어로즈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해 나머지 구단으로부터 맹비난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희원·이선화 "예감이 좋다"

LPGA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1R 공동 선두

한희원(30·휠라코리아)과 이선화(23·CJ)가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주최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초청 대회에서 공동 선두로 나섰다.

한희원은 14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골프장(파72, 6천644야드)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4개만 뽑아내며 4언더파 68타로 리더보드 맨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작년 8월 출산 이후 2개월만에 필드에 복귀, 서서히 샷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한희원은 지난 2일 끝난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오르는 등 시즌 막판에 힘을 내고 있다.

시즌 3승에 도전하는 이선화는 보기 3개를 적어냈지만 이글 1개, 버디 5개로 만회하면서 한희원과 함께 공동 선두에 나섰다.

이밖에 공동 선두 자리에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청야니(대만), 안젤라 스탠퍼드(미국) 등 모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지영(23·하이마트)과 이미나(27·KTF), 최나연(21·SK텔레콤)이 공동 1위에 1타 뒤진 3언더파 69타로 공동 9위에 포진했고 김인경(20·하나금융) 등이 2언더파 70타로 공동 13위에서 추격했다. 하지만 대회 주최자인 오초아는 1오버파 73타에 그쳐 공동 24위로 밀렸다.

상위 랭커 36명만이 출전한 이 대회는 총상금 100만달러에 우승 상금 20만달러가 걸려 있다.

'산소 탱크' 3경기 연속 선발 도전

박지성 오늘 밤 스토크시티전 출격 대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7)이 3경기 연속 선발 출전과 시즌 2호 골에 도전한다.

맨유는 15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2008-2009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스토크시티와 홈경기를 치른다.

박지성은 이번에 출격하면 3연속 선발이다. 아스널 원정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고, 12일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칼링컵 16강전에서도 선발로 나와 90분을 모두 뛰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칼링컵에서 나란히 호흡을 맞춘 박지성과 루이스 나니 가운데 한 명이 남은 한쪽 측면에서 맨유 공격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박지성은 이 경기를 마치고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원정경기를 치르는 축구대표팀에 합류한다.

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 고갈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경기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대표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박지성과 함께 대표팀에 소집되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이영표(31·도르트문트)와 프랑스 리그1의 박주영(23·모나코)도 나란히 출격한다.

이영표는 프랑크푸르트와 홈 13라운드에서 10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을 앞두고 있고, 박주영은 렌과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시즌 3호골을 정조준한다.

무릎 부상을 완전히 떨친 김두현(26·웨스트브롬)은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호 첼시를 홈에서 만난다.

김동진 허벅지 부상 허정무호서 제외

7회 연속 월드컵축구 본선 꿈을 안고 험난한 중동 원정에 나선 허정무호에서 첫 낙오자가 나왔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4일(한국시간) 카타르와 평가전을 앞두고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최근 1주 훈련을 하지 못했던 수비수 김동진(26·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을 대표팀 엔트리 25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파주 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된 제9기 허정무호에서 중도하차 선수가 나온 건 김동진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왼쪽 풀백은 '왼발 달인' 김치우(서울)가 주전 자리를 사실상 굳히게 됐다.

농구 코트의 '노바디'

14일 경기도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치어리더들이 흥겨운 노바디 댄스로 관중들의 응원을 리드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신한은행이 80대 7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허원경·이민창 생애 첫 우승 노려

KPGA선수권대회 2R 공동 선두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NH농협 제51회 KPGA선수권대회 둘째날 선두권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14일 경기도 포천 베어크리크 골프장(파72, 7천225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전날 단독선두였던 정재훈(31·동아회원권)이 타수를 줄이지 못한 사이 허원경(20·삼화저축은행)과 이민창(21·동아회원권)이 6타를 줄여 중간 합계 7언더파 137타로 공동 선두에 뛰어 올랐다.

허원경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유망주로 작년에 상금 랭킹 32위에 오르며 무난하게 데뷔 시즌을 치렀다. 올해까지 우승이 없는 허원경은 이번 대회에서 이틀 연속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내며 역시 우승컵을 갖지 못한 이민창과 함께 생애 첫 우승을 노리게 됐다.

하지만 KEB인비테이셔널 2차 대회 우승자 김대섭(24·삼화저축은행)과 베테랑 전태현(41·캘러웨이)등이 1타 뒤진 6언더파 138타로 따라 붙었고 다승왕을 노리는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도 3타를 줄이며 공동 8위(5언더파 139타)에 자리했다.

또한 공동 선두에서 공동 11위까지 타수 차가 3타에 불과해 우승자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안선주 버디 7개 완벽 플레이 펼쳐

세인트포 마스터스 첫날 선두

미국 진출을 앞둔 안선주(21·하이마트)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유럽여자프로골프(LET)가 공동 주최한 세인트포 레이디스 마스터스 첫날 단독 선두에 나섰다.

안선주는 14일 제주 세인트포골프장(파72, 6천331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7개를 골라내는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다.

오채아(20·하이마트), 글라디스 노세라(프랑스) 등 공동 2위 2명을 3타차로 따돌린 안선주는 지난 달 삼성금융레이디스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두번째 우승을 노릴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 달 2일 열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퀄리파잉스쿨 최종전에 출전하는 안선주는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대회라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때려낸 오채아는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여자오픈 우승 이후 이어진 슬럼프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오채아는 우승 이후 한번도 '톱 10' 입상이 없었다.

"우즈, 100타 깰테니 지켜 봐라"

조던, US오픈 코스서 도전

"US오픈이 열렸던 골프장에서 핸디캡10인 골퍼가 100타를 깨기는 불가능하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이같은 공언을 뒤집기 위해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이 메이저골프대회가 열렸던 골프장에서 100타 깨기에 도전한다고 14일 AP통신이 보도했다.

골프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내년 6월 US오픈 개최지인 미국 뉴욕주 파밍데일의 베스페이지주립공원골프장 블랙코스에서 조던과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 아마추어 골프 고수들을 초청해 이벤트 대회를 연다.

US오픈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중에서도 코스 세팅이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더욱이 2002년 US오픈이 열렸던 베스페이지 블랙코스에서는 당시 3언더파 277타로 우승했던 우즈가 언더파 기록을 냈던 유일한 선수였을 정도다.

스포츠중계

15일(토)

▲2008 LPGA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2R(05 : 20·SBS골프)

▲08/09 NHL〈디트로이트 : 플로리다〉(09 : 30·SBS스포츠)

▲08/09 NBA〈보스턴 : 덴버〉(10 : 00·MBC ESPN)

▲아시아 시리즈 2008〈중국 청진 : 일본〉(12 : 00·MBC ESPN), 〈대한 통이 : 한국 SK〉(18 : 00·MBC ESPN)

▲2008 NH농협 제51회 KPGA 선수권 대회 3R(13 : 00·SBS골프)

▲제63회 전국대학축구 선수권대회 준결승전(13 : 00·KBS N SPORTS)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볼튼 : 리버플〉(21 : 30·MBC ESPN)

16일(일)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멘체스터Utd : 스토크시티〉(00 : 00·MBC ESPN), 〈웨스트브롬위치 : 첼시〉(02 : 30·MBC ESPN)

▲08/09 프랑스리그 앙 축구(03 : 00·KBS N SPORTS)

▲2008 LPGA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3R(05 : 20·SBS골프)

▲2008 NH농협 제51회 KPGA 선수권 대회 FR(13 : 00·SBS골프)

▲프로야구 아시아 시리즈2008 결승전(14 : 00·SBS·MBC ESPN)

▲08/09 이탈리아 세리에A축구〈칼리아리 : 피오렌티나〉(23 : 00·KBS N SPORTS)

17일(월)

▲08/09 프랑스 리그1 축구〈렌 : AS모나코〉(23 : 00·KBS N SPORTS)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헐시티 : 맨체스터시티〉(01 : 00·MBC ESPN)